



대가초등학교
김일순교사

봄날 토요일 오후의 열기가 가득한 꿈돌이랜드에서는 한창 꿈돌이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었다. 잠시 후 제16회 천체사진공모전 시상식이 열릴 예정인 여왕의 무대 옆에는 당선작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아담하게 꾸며진 전시 공간에서 몇몇 학생들이 한가롭게 천체사진을 감상하고 있었다. 큼직하게 걸려있는 오리온자리 말머리성운 사진 한 장이 눈에 확 띄었다. 강렬한 빨간색과 파란색의 대비 속에 까만색 말머리가 우뚝 솟아오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사진이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이번에 대상을 받은 단양 대가초등학교 김일순 선생님의 작품이었다.

약속 시간 보다 일찍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는데, 김일순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제야 도착하신 모양이었다. 아이들과 부인과 함께 시상식 참여 겸 나들이 겸 대전에 오신다기에 시상식 현장에서의 인터뷰를 청했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이번 공모전 사진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말머리성운은 천체사진공모전에 출품하기에는 너무 흔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오리온자리 말머리성운은 너무나 잘 알려진 천체여서 그 만큼 특별하게 잘 찍기도 무척이나 힘들어요. 기술적인 면에서는 냉각 CCD를 사용했고요. 말머리 쪽은 H α 필터를 사용해서 찍었어요. 특히 말머리성운에서는 거품이나 커튼 구조를 살리려고 노력했지요. 아래 쪽 반사성운은 다른 필터들을 사용해서 성운 내부 모습을 살리려고 노력했지요.”

이런 노력 덕분인지 흔한 말머리성운 사진이지만 디테일이

무척 돋보이는 것 같았다.

“제가 쓰는 CCD 칩이 작아서 두 부분을 찍어서 모자이크 했어요. 욕심 같아서는 말머리성운을 한가운데에 놓고 싶었는데 반사성운 쪽 별에서 오는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하다 보니 화각에서 좀 손해를 봤지요. 여전히 색감이 좀 더 강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김 선생님은 좀 더 길게 이어진, 꼼꼼한 기술적인 이야기 끝에 너무 잘 알려진 천체라서 작업하기가 무척 힘들었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만큼 이 작품에 애착이 가고 미련도 떨치기 힘든 모양이었다. 심사위원장인 충북대 이용삼 교수는 김일순 선생님의 작품을 ‘대상작은 특수필터를 사용해 말머리처럼 우뚝 솟아 있는 세부를 잘 포착했다’는 심사평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어찌 보면 격랑의 파도를 헤쳐가고 있는 용 한 마리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고향이 월악산 근처예요. 집 코앞에 월악산이 있었지요. 어느 시골집처럼 밤에 화장실 가려면 밖에 나와야 했었지요. 그 때 올려다 본 밤하늘과 그 별들, 잊을 수가 없어요. 시골에는 불빛이 거의 없었잖아요. 6등성도 확연히 보이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시골에서도 방범등 때문에 그런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요.”

늘 쌍안경 하나 사서 별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부모님께 손을 벌릴 처지는 아니었다. 김 선생님은 교사가 되면 큰 것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쌍안경이나 천체망원경을 사서 별을 즐겨봐야겠다고 늘 생각했었다고 한다.



“1993년에 발령받은 다음에 다카하시 3인치 망원경을 구입했어요. 김성호 박사님이 쓰시던 것인데, 판다고 해서서 얼른 구입했지요.”

이렇게 시작된 김 선생님의 아마추어 천문 여정은 그 후 9.25인치 슈미트 카세그레인과 8인치 반사망원경으로 이어졌다.

“저 망원경을 갖게 되면 ‘뭔가가 또...’ 왜 이런 생각에 빠져들게 되잖아요.”

1999년 무렵부터 그동안의 안시 관측에서 사진 촬영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게 되었다.

“눈으로만 보다 보니까 남는 것이 없더라고요. 아내에게 보여줄 것도 없어요. 사진을 해 보자 그렇게 생각했죠. 처음에는 달부터 찍고 태양 흑점, 목성 등등 필름으로 시작했어요. 별자리도 많이 찍었지요.”

펜탁스 카메라와 각종 렌즈를 갖추면서 본격적으로 천체사진 촬영에 뛰어들었다. 지방에 있다 보니 정보도 부족하고 부탁할 곳도 마땅치 않아서 고생이 많았다고 한다.

“천천 카메라를 만들어서 찍기도 했어요. 디카(디지털 카메라)로 넘어 가면서 장비를 모두 정리했는데, 이전 직접 깎아서 만든 것이라 팔수가 없더라고요.”

2000년 무렵에 디카 촬영이 시작되었다.

“캐논 300D를 쓰면서 본격적으로 디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일반 카메라에서 H α 필터링 하는 장치를 제거하는 작업도 해봤어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외국 사진도 보고 ‘오늘의 천체 사진’도 보면서 괜히 욕심이 생겨서 제가 갖고 있는 장비에 불만도 생기고... 그래서 결국 냉각 CCD로 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진을 찍으러 돌아다니다가 강원도 횡성 천문인 마을에 있는 ‘나다 천문대’에 정착을 했다.

“아마추어천문가인 황인준 씨를 비롯해서 여덟 명이 공동으로 만든 천문대입니다. 서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어댑터와 아이피스도 빌려 쓰고... 참 좋아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망원경은 황인준 씨가 만든 거예요. 마침 새로운 장비를 마련하려고 고민 하던 중에 넘겨받았지요. 그 전에도 황인준 씨 장비를 몇 번 인수했었고요.”

천문인 마을의 하늘도 주변 스키장을 비롯한 인공 불빛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한 나다 천문대 이야기가 개인 천문대를 지어서 독립한 황인준 씨 이야기로 이르게 되었다.

“그 곳에 가보았는데 좋더라고요. 저도 꿈이 그겁니다. 개인

천문대 겸 별장!”

김 선생님이 살고 있는 제천에서 강원도까지 가려면 무척 힘들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던졌는데 예상 밖의 대답이었다.

“집에서 차로 40분 정도만 달려가면 나다 천문대에 도착해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가까워요. 날만 좋으면 갑니다. 지난 연말에 하드디스크 정리하다 보니까 날짜별 폴더가 50개를 넘더라고. 작년에 최소한 50번은 갔다는 이야기도요. 퇴근 후에도 위성 사진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밤 12시에도 출발합니다.”

1년 중 50일 이상을 밤에 집을 비우고도 가정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늘 미안해서 집안일을 제가 많이 합니다. 아내 보다 1시간 먼저 퇴근 하거든요. 저녁 준비 해놓고, 빨래 돌려놓고... 주말에는 청소도 하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좀 미안하죠. 아이가 어려서 같이 못 다니는데 좀 더 크면 데리고 다니려고요. 지금도 집 베란다에서 달을 보여주곤 합니다. 여름에는 별만세(천문동호회) 주최 2박 3일 관측회에도 같이 가기도 하고요.”

아내에게 늘 고맙다는 이야기 끝에 아내와의 돌고래자리 추억을 들려준다.

“돌고래자리가 그 전설도 그렇고 서양에서는 프리포즈 의미를 갖는다고 해요. 저도 돌고래자리 사진 찍고 돌고래자리에 얽힌 별자리 전설을 담아서 청혼을 했었지요. 그래서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고요. 제일 애착이 가는 별자리입니다.”

다시 천체사진 이야기로 돌아가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천체가 있는지, 다음 도전은 어떤 것일지 물었다.

“마음 같아서는 이것저것 다 하고 싶지요. 작은 천체에 관심이 있어요. 특히 작은 은하 촬영에 관심이 많습니다. 처녀자리 은하단보다는 헤라클레스 은하단의 은하들이 마음에 들어요. 더 멋지더라고요. 행성상 성운에도 무척 관심이 많아요.”

요즘 들어 부쩍 작은 은하나 행성상 성운 같은 작은 대상들을 허블우주망원경이 찍은 것처럼 멋있게 찍어보고 싶다는 욕심이 점점 커진다고 한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더 큰 냉각 CCD로 바꿔볼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시상식도 끝나갈 무렵, 꿈돌이랜드의 상징인 폴라리스 타워에는 어느새 북극성과 북두칠성, 그리고 카시오페이아의 불빛이 아련히 밝아오고 있었다.